

'본부장님, 대안 없이 비판하지 말라고요?'



“아이, 참 답답하네. 팀장이나 돼 갖고서 말이야! 대안을 갖고 오라고! 무작정 반대만 하지 말고!”

오늘 물류센터 부지 검토를 위한 사업부 회의에서 본부장이 한 말이다. 신규 센터 확충이 필요했고, 물류팀장은 세 군데 부지 후보를 가져왔다. 아마도 본부장은 OO 시 부지가 맘에 있었던 것 같다. 비용이 제일 낮긴 했지만 여러 면에서 적합하지 않았다. 그래서 팀장들 모두 반대했더니 본부장이 폭발한 것이었다.

그동안 '대안 없이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들긴 했었다. 오늘 본부장처럼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반발에 직면했을 때 그 말을 꺼냈다. 옆에서 듣고 있으면 그럴 듯하게 들리기도 한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투덜대기만 하는, 무책임한 사람처럼 만들어버리니까. 하지만 결국엔 '닥치고 내 지시를 따르라' 또는 '내 생각에 반대를 해? 고안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는 언사다.

이슈를 처음 접해서 이제 좀 생각해보려는데 '대안'이 그렇게 금방 떠오를 수는 없다. 본인 소관 업무가 아닌 이상 사전에 충분히 고민했을 수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이상한 논의 자체를 잠시 중단하자는 의미다. 멈추고 비껴 서 봐야 대안을 생각해볼 게 아닌가!

대안을 말하는 이들은 정작 본인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한다. 불행히도 우리 본부장도 그런 사람이다. 우라질! 회의에서 본인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나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고민한 사람만 말해!”라고도 했다. 그냥 말로 하는 폭행이다. 입으로 싸지르는 총탄이다.

“본부장님! 대안 없이 반대한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대안을 찾으시면 될 거 아닙니까!”

I 필자: 에밀 팀장 in 팀장클럽(café.naver.com/teamleadersclub)